공동체 소식

주님승천 대축일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 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 입니다.

- "주님의 승천은 온 세상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 매일미사 119면 참조.

▣ 5월은 '성모성월' 입니다.

-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는 달입니다.

▣ 6월 첫주간 신심미사 안내

- 예수성심신심 : 6/2(금) 오전 10:00, 부활시기 동안 '십자가의 길 기도'는 없습니다.
- 성모신심미사 : 6/3(토) 오전 10:00, 묵주기도와 함께 하는 미사

▣ 소공동체 봉사자 모임(구역장 반장 모임)

- 일시 : 오늘(5/28)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관

▣ 반 모임 안내

- 내용 : 날자와 장소는 반장님이 주관하여 정하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6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6/10(토) 11:30부터.

" 믿는 이의 삶은 사랑 안에서 넓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활동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아드님이신 그분의 자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이신 그분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빛」 21항 | 그림 임의준 신부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141	211	163	141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김정원 안젤라	
차 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콜라스티카
차 주	정수한 베드로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수연, 최선윤
차 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 헌금 봉사자

금 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5/21	57명	259달러	630달러
감영진, 한봉경, 현교정, 문석찬 (총 4세대)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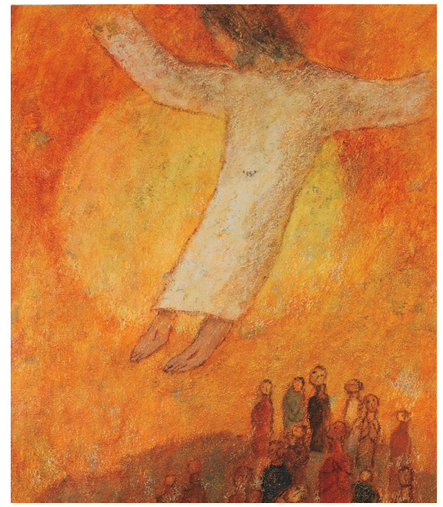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전하도록 합시다. 우리도 하늘에 올라 영광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까지, 젊은이들처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섭시다.

그림 묵상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다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9-20)

주님 승천 대축일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 줍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상으로 오르셨듯이, 우리 모두는 지상에서 순례의 길을 끝마치면 우리의 본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갑다. 그곳에는 우리가 늘 그리워하는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1,1-11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화 답 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17-23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28,16-20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쉐 마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행전 1,9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고 전합니다. 이 구절을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계속 올라가시어 우주의 어느 별에 가신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감싸여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 이미지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탈출 24,15에서는 모세가 산으로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어 모세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태 17,5; 마르 9,7; 루카 9,35) 거기서도 구름이 모두를 덮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구름이 누군가를 덮을 때 항상 주님의 뜻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른 산이 구름에 감싸인 뒤에는 하느님의 뜻인 계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타보르 산 위에서는 구름이 모두를 덮은 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 승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분을 덮자 주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을 전해 줍니다.(사도 1,10)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 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권고입니다.(사도 1,8)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오 복음서가 비록 주님 승천 이야기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복음서의 마무리 구절인 이 대목을 보면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얼른 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름과 함께 하느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에서 우리는 구름이 하느님께서 머무는 장소로 여겨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구약성경에서 구름은 하느님 현존의 장소이자(탈출 19,9), 주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탈출 16,10)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구름 기둥 속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탈출 13,21; 14,24) 결국,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 안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현존의 장소로 들어가셨음을,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자리에 오르셨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승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당신의 일, 곧 이 땅에 하느님의 뜻이 충실히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곁을 떠나심으로써 교회가 당신의 일을 이어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구름 기둥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들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다짐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끝 날까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며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름을 여시고 당신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금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 염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교리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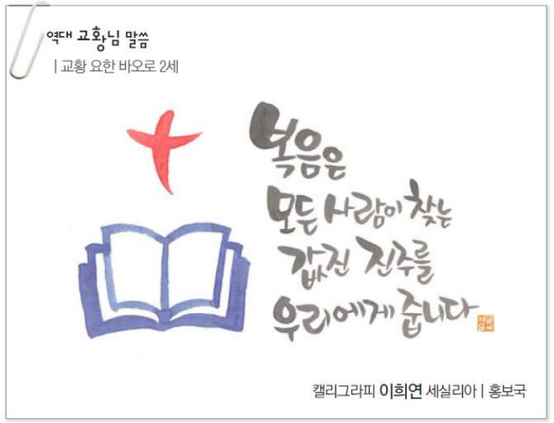
삼종기도(Angelus)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루카 1,38 참조) 해 질 무렵 일손을 멈추고 겸손하게 저녁기도를 바치는 농부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밀레의 그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선 '만종(晩鐘)'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제목은 '삼종기도(Angelus)'입니다. 삼종(三鐘)은 종을 세 번 친다는 말입니다.

삼종기도는 하루 3번 일과를 멈추고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밀레 그림의 장면은 해가 저무는(晩: 저물 만) 그 시간에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삼종기도를 'Angelus(안젤루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삼종기도의 라틴어 기도문이 이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Angelus Domini nuntiavit Mariae, Et concepit de Spiritu Santo."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루카 1,28 참조)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으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잘 드러납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루카 1,38 참조) 마리아의 신앙고백인 이 피앗(Fiat: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형)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태동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요한 1,14 참조) 비로소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종기도는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잉태와 강생의 신비(루카 1,26-37)를 기념하기 위하여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성모송을 바칩니다. 삼종기도는 해돋을 무렵(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정오(잠시 쉬는 점심) 그리고 해질 무렵(하루 일을 바치는 저녁)에 바칩니다. 이 짧은 기도를 통해 구세주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강생(降生)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데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7)

- 김지영 사무엘 신부



복음묵상

성장

누군가는 좌절의 계기라 하고
누군가는 성장의 기회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시험의 시작이라 하고
누군가는 믿음의 깊어짐이라 합니다.

앞으로
눈에 보이질 않을 예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만
보고 만져질 우리의 주님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 임의준 신부